

한국불교, 상좌불교와 접합점은?

‘불교평론’ 10일 ‘상좌불교 포용’ 학술심포지엄

간화선과 대승불교를 표방해온 한국불교계에 한계를 느낀 일부 출가수행자들은 1990년대 위빠사나 수행을 위해 미얀마 등 남방으로 떠났다.

현재 그들 중 다수가 국내에 들어와 위빠사나 등 상좌불교의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빨리어를 번역한 초기경전서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읽히고 있는 추세다. 한마디로 한국불교계에 남방불교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불교가 현재 교리·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상좌불교의 확산으로 교리와 사상, 신행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상좌불교와 한국불교와의 만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간 <불교평론>은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상좌불교, 무시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화엄학립 강사인 재연 스님은 ‘한국불교가 당면한 교리·사상적 과제’를 주제로 기초발제를 맡는다. 인도 뿌나대학에서 빨리어를 전공한 재연 스님은 통불교(通佛敎)를 지체하는 한국불교를 △계율을 소홀히 여기는 일반적 풍조 △교학과 특정 교리의 역사적 이해 부족 △수행과 일상생활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들어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남방불교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 마성 스님(빨리문헌연구소장)이 ‘한국불교와 상좌불교의 만남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성 스님은 △고·중세 남방불교의 전래설 △근현대 상좌불교와의 만남 △한국에서의 상좌불교 도입 시기를 고찰하고 한국불교와 상좌불교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불교 경전의 결집 과정과 논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 연구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하고 교정하는 경전 편찬회의인 ‘결집(結集)’을 빨리 전승의 문헌에서 전하는 세 차례의 결집을 중심으로 살핀 후, 현재 불교경전의 새로운 결집을 위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상좌불교 공동체의 계율은 여전히 유효한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상좌불교와 승가공동체의 계율이 재가자 공동체와 시민사회로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의미와 유효성을 지니는지 고찰하며, 한국적 시민사회속에서 도덕담론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에 관한 논의도 다룰 예정이다.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빨리어 경전과 대승경전의 사상적 차이’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부처님의 원음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 중의 하나인 <숫따니빠따>와 대승불교의 특성이 집약된 <법화경>을 중심으로 △개요 △구성 △형식 △불타관 △사상적 차이 등을 비교한다.

이병욱 중앙승가대 강사는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비교’를 주제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개념과 수행법을 설명하고 이 둘의 공통점을 찾아 서로 보완할 점을 모색한다.

이도홍 한양대 국어국문학 교수는 ‘틱낫한이 서양에 영향을 끼친 까닭과 배울 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임제종의 법맥을 잇고, 초기경전에 근거한 마음챙김 수행을 추구하는 틱낫한 스님이 서양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스님의 능력과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작용한 점을 예로 들어 스님의 사상과 수행법을 고찰한다.

이은 기자

세계 최고 금속활자 바꾸나

<最古>

‘증도가자’ 직지보다 138년 앞서… 남권희 교수 공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보다 최소 138년 이상 앞선 금속활자 실물이 공개됐다. 이 금속활자가 세계 최고(最古)로 공인되면 세계 인쇄술 역사가 바뀌게 된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한국서지학회 회장)는 9월 2일 서울 인사동 다보성고미술에서 설명회를 열고 “다보성고미술이 소장한 금속활자 100여 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2점이 1377년 간행된 직지보다 앞선 13세기 초 ‘(가칭)증도가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 교수가 ‘(가칭)증도가자’로 이름 붙인 금속활자 12점은 △명(明) △소(所) △에(於) △품(品) △선(善) △평(平) △방(方) △법(法) △의(我) △복(福) △불(佛) △자(子)자이다.

이들 활자는 삼성출판박물관 소장품 중 고려 고종 26년(1239) 금속활자본을 목판본으로 복각한 <남명전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보물 제758호·이하 증도가)>의 글자체와 완전히 일치한다.

목판본 <증도가>에 권말에서 당시 무신정권 최고 권력자 최이(崔怡)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 <증도가>를 목판으로 복각해서 찍어냈다”고 적었다.

남권희 교수는 “지방에서 밀랍 주조 방식으로 제조된 <직지>와 달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권희 교수가 ‘증도가자’로 이름 붙인 금속활자 중 명(明)·불(佛)·자(子)자.



‘증도가자’는 중앙에서 구리 등을 주성분으로 제조됐다”며 “제작 및 사용 시기는 13-14세기로 <증도가> 뿐 아니라 13세기 당시의 다른 책과 같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1377년 찍은 <직지>를 비롯해 11세기 중국 송나라 때 사용됐다는 교나활자(진흙, 아교)나 13-14세기 원나라 때 쓰였다는 목활자 등은 활자 실물이 없는데 반해, ‘증도가자’는 실물이 확실해 큰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도가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으로 알려진 <직지>보다 최소 138년 이상

앞선 금속활자”라며 “세계 기록문화 역사를 다시 쓸 세계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도가자’는 일본 강점기 무렵 출토돼 일본인 수집가가 가져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복과 함께 일본으로 유출됐던 것을 10여 년 전 국내의 개인 수집가가 매입해 들여왔다.

다보성고미술은 10월 15일까지 ‘우리문화 유산의 지혜와 멋’ 특별전에서 ‘증도가자’ 등 300여 점을 전시 중이다. (02)730-5601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회 등 학술행사 다채

불교학연구회 · 불광연구원 11일, 선리연구원 27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 9월, 불교학계에서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9월 11일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가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오인 스님(일본 교토 불교대학 박사학위)이 ‘불교문화의 재구성’을 주제로, 양혜원(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씨가 ‘16세기 안동지역 불우(佛宇)의 존재상 변화와 그 의미’를 주제로, 김정림(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수료)씨가 ‘베다 점성학에서의 달의 교점(Nodes)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불교문화론 전공한 오인 스님은

불교문화에 대한 종래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각으로 불교문화론을 해석하고자 했다.

스님은 불교문화론을 조각, 회화, 음악, 문학, 공예 등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방식을 불교문화의 삼원이론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인 스님은 불문화층, 법문화층, 승문화층, 불법문화층, 불승문화층, 법승문화층, 불법승문화층(삼보문화층) 등 7개 문화층에서 각각의 문화층을 다시 조각, 회화, 음악, 문학, 공예, 기타로 세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래와 변용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 다양한 불교사상의 근간은 삼보(三寶)이므로 불교문화에 대한 연

구 또한 삼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불교사를 전공한 양혜원 씨는 산문불교시대라 일컬어졌던 조선시대 16세기 당시 중앙 행정과 조대 사상계를 선도하던 해당 지역 성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안동지역의 향촌사회를 고찰한다.

양 씨는 특히 불교와 관련해 향촌에 위치한 각종 시설, 대표적으로 불우(佛宇)의 변화를 살피며 16세기 조선시대 지역사회의 지배층과 민중의 의식에서 불교가 어느 정도로 탈각되고 있는지 인식변화를 조명한다.

요가학을 전공한 김정림 씨는 고대 인도에서 전승되어온 베다 점성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카르마

를 설명해주는 달과 달의 교점이 어떻게 카르마(業)와 상관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불광연구원은 9월 11일 오후 2시 잠실 불광사 교육원에서 제3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보현행원의 길, 정도왕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최원섭 연구원(성철사상연구원)이 ‘공덕스님의 보현행원 사상’을, 김영진 연구교수(인하대 한국학연구소)가 ‘바라밀업송과 법신업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9월 27일 오후 4시 선학원 2층 회의실에서 제12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남궁선(동국대 불교학 박사)씨가 ‘공업사상(共業思想)의 연원과 사회 실천적 전개’를 주제로, 장희정(대청호미술관 학예사)씨가 ‘돈황 막고굴 제196굴 노도차투성(勞度叉闍城) 변상도의 양식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 기자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재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개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심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침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청, 관음청, 지장청 등 천도재, 49재,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시물 - 북, 요령, 목탁)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의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음 신중작법 - 옹호계,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계

특강 : 승무, 실품이(무형문화재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초심자에게 불교전통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수처 : 불광불교대학 종무소(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도동 불 광 불 교 대 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 (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

日用齋儀式 受講生 모집

조계종 어산·범패·작법 보존회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 동주원명스님을 모시고 안채비(일용 권공·법당 내 의식)를 중심으로 한 불전예식 및 재 의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에 불교 의식에 관심 있는 學僧들을 모집합니다.

*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2010년 9월 9일(목요일) 오후 2시 **홍원사** 교육관

교육 내용

- | | |
|--------------------------|-----------------------|
| 1. 이론 | 2. 실기 |
| ① 안채비 중심의 일용 권공 의식 | ① 일용 권공 의식의 진행을 위한 소리 |
| ② 한국 불교 무용 | ② 바라무·나비무 |
| ③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 | ③ 法具 연주(태징·북·목탁·요령) |
| ④ 한국 불교 의식의 보존 방향에 관한 제안 | |

* 교 재 : 승가의 범(저자: 동주 원명)

* 교육기간 : 1년 * 특 전 :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 교육일시 : 매주 1~2회 (강의시간은 면접 당일 날 정함)



주관: 조계종 어산. 범패. 작법. 보존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홍원사** 02) 2658-3100